

화천 선등거리 20일 점등

화천군 겨울축제 시즌 개막

화천군 겨울축제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선등거리 점등식이 20일 개최된다.

화천군은 20일 오후 6시 화천읍 중앙로 일대에서 선등거리 점등식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후 5시20분부터 화천읍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서 실내얼음조각광장 개장을 알리는 타빙식이 열린다.

선등거리에는 지난 1년 간 화천지역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형형색색의 산천어등과 LED 조명 수만여 개가 설치됐다.

카운트다운 후 선등거리에 일제히 산천어등이 빛을 발하게 되면, 화려한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올해는 인기가수 조성모, 김중서 등이 출연해 신나는 무대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사한다.

이날 첫 선을 보이는 실내얼음조각광장에는 지난날 입국한 하얼빈 주재 병설문화발전유한공사 기술진들이 조각한 세계 유명 건축물과 각종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총면적 1,700㎡의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에는 8,500여개 이상의 얼음조각이 사용된다.

실내얼음조각광장은 개장일인 20일에 한해 무료로 개방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1년 동안 기다려주신 관광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로 내년 1월 찾아뵙겠다”고 했다.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는 내년 1월10일부터 2월1일까지, 23일 간 화천천과 화천읍 일대에서 열린다.

춘천 퇴계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로 새단장

춘천 퇴계산업단지(구 퇴계농공단지)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했다.

노후 산업단지의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중심의 휴게시설을 확보해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2022년 산업통상부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0%를 포함한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 및 입주기업 설명회, 도시숲·육외광고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하고 노후 담장 정비, 보행환경 개선, 쉼터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등 산업단지 내 핵심 공간을 단계적으로 정비했다.

디지털 안내간판은 내년 3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산업단지 내 근무자가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쉼터, 인근 주민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공간 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는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한층 개선되고 청년층 근로자 유입 증가 및 근로환경 만족도 상승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강원지역산업 정책워크숍 개최

12.18~19. 홍천, 혁신기관·기업·대학 등 300여 명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 18일(목),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강원지역산업 정책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06년 처음 시작된 강원지역산업 정책워크숍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며, 강원도 산업정책 협력의 대표적인 상징 행사로 자리 잡았다.

초기 3개 혁신기관이 참여한 소규모 정책 논의에서 출발한 이 워크숍은 현재 24개 혁신기관과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강원도 최대 규모의 산

업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년간 축적된 협력 네트워크는 강원 산업 생태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기초강연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가 '5극3특 추진방향과 강원특별자치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원도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으며, 위즈코어 황규순 상무는 '제조와 IT융합 DX·AX 사례'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인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진 주제강연과 우수기업 성과사례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강원 미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도 산·학·연·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 강원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7일(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과 강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1층 강당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균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행정·기업·노동·지역 현장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토론을 통해 강원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가 논의됐다. 좌장은 정구연 교수가 맡았다.

김민석 기자

원주시 학성동,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4월 착공해 기초공사 후 1층 골조공사 중, 내년 말 완공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

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반도체 제조를 위한 클라스100 수준의 클린룸을 갖추며, 전공정 및 후공정, 측정 분석 등에 필요한 200억 원 상당의 국가 지원 장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반도체 교육은 이미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우산동 상지대학교에 한국반도체교육원 임시교육장을 만들고, 강원테크노파크에 운영을 위탁했다.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측정 분석과 설계, XR(확장현실) 등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 최초의 공공 주도 반도체 교육기관인 만큼,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재직자 등 다양한 반도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교육원 건립이 완료돼 운영을 시작하더라도 공공 교육이라는 특성상 교육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산업인 의료기기산업과 AI·반도체를 융합한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예정된 국책사업인 '의료 반도체 실증플랫폼'을 유치해 의료 반도체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군도 15호선(수하리) 도로 확장·포장 사업

평창군은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 군도 15호선의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군도 15호선(수하리) 도로 확장·포장 사업(1구간)을 준공했다.

이번에 준공된 1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남아 있던 구간으로, 연장 140m, 폭 8.5m 규모의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통해 차량 교통 여건과 주행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수하리 군도 15호선 전반에 대한 위험 구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안반데기 고령지체

소 농산물 출하 과정에서 제기된 통행 불편과 관광 명소 부각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평창군은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군도 15호선 도로 확장·포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생활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목호감성마을 동해愛 한 달 살기'확대 운영



동해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목호감성마을 동해愛 한 달 살기'사업을 2026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호감성마을 동해愛 한 달 살기'사업은 동해시민을 제외한 입주자가 한 달간 입주시설에 머무르며 동해시의 문화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총 5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예술 활동과 관광체험을 병행했으며,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북토크,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예술 분

야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26년에는 기존 입주시설인 주택형 공가에 더해 새로운 아파트형 공가가 추가될 예정이다.

아파트형 공가는 이번 12월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에어컨, 세탁기, 침대 등 가전·가구가 구비되어 있어 쾌적한 체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입주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예술인 패스 소지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됐으나, 2026년부터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등 동해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선옥 문화예술과장은 “한 달 살기 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더 많은 입주자들이 동해에서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강릉시-강원도립대학교, GPR 공동탐사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지역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립대학교와 함께 도심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공동탐사를 실시하여 노면 하부 공동(空洞) 및 지반 이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도로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번 공동탐사는 교통량이 많고 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강릉대로(강릉우체국 방면)와 동해대로(범원 방면)에 대한 정밀 탐사가 이루어졌다.

탐사는 육안조사와 함께 GPR 장비를 활용해 노면 하부의 반사파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GPS 연동을 통해 지반 이상 의심 지점을 정확히 위치화하여 향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릉시는 이번 탐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GPR 탐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정밀 지반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흥 도로과장은 “이번 강원도립대학교와의 공동탐사는 과학적 장비를 활용하여 도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밀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수원도시공사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신호탄  
수도권 첨단과학 클러스터의 중심

탐동 이노베이션벨리

